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3. 1. 26.(목)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마정애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박진아 (043-719-2210)

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 식약처, 2022년 수입식품 통계 발표 -

√ 2022년 수입식품 규모는 2021년 대비 3.0% 증가(중량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3%)의 두 배 이상

√ 농·임산물이 전체 수입량의 46.1%로 1위 차지…건강기능식품(20%)과 축산물(14.5%)의 경우 수입량 대폭 증가

√ 상위 10개 품목(주요 수입국)은 밀(호주), 정제·가공용 식품원료(호주), 옥수수(우크라이나), 대두(미국), 돼지고기(스페인), 현미(중국), 명태(러시아), 바나나(필리핀), 과·채가공품(중국), 김치(중국)

√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두 국가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33.8% 차지

√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0.18%로 2021년의 부적합률(0.17%),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적합률(0.17%)과 비슷한 수준

√ 올해 정부 최초로 365일 24시간 디지털 시스템으로 신고 서류를 자동 검토하는 수입식품 전자 심사24(SAFE-i24)로 전환(일부품목 시범 운영)→영업자의 비용·시간 절감,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신속하게 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국내 수입식품 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는 1.5% 감소했으나 수입중량과 금액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식품 등 분류(이하 '품목군') :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 특히 작년 수입 증가율(중량 기준 : 3.0%)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3%)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는 **모든 품목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고르게 증가**한데다 **건강기능식품(20.0%↑)**과 **축산물(14.5%↑)**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건강기능식품(20.0%↑), 축산물(14.5%↑), 수산물(7.7%↑), 기구 또는 용기·포장(4.2%↑), 농·임산물(1.6%↑), 식품첨가물(1.6%↑), 가공식품(1.1%↑)

< 최근 5년간 수입신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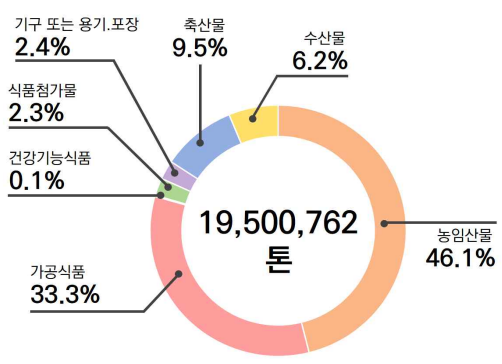
연도	수입건수	증가율(%)	중량(톤)	증가율(%)	금액(천달러)	증가율(%)
2022년	802,201	▽1.5	19,500,762	▲3.0	38,954,991	▲19.6
2021년	814,618	▲8.5	18,936,539	▲3.3	32,577,910	▲19.5
2020년	750,993	▲1.7	18,332,908	▽0.6	27,262,396	▽0.8
2019년	738,082	▲1.4	18,441,149	▽0.6	27,472,957	▲0.5
2018년	728,114	▲8.3	18,553,556	▲1.4	27,337,055	▲9.5

* 2018년 이후 연평균 수입건수 2.5%, 중량 1.3%, 금액 9.3%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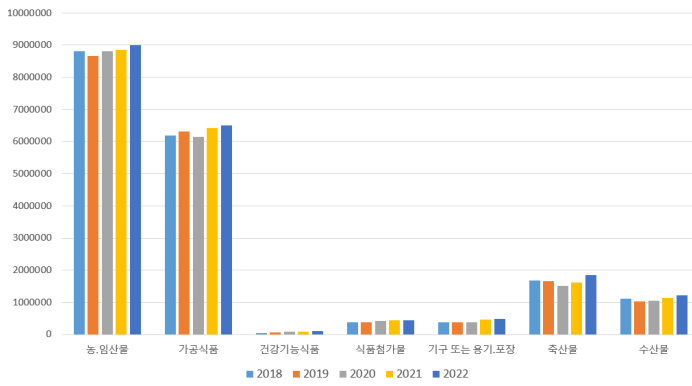
□ 수입신고는 작년에 **총 80만 2,201건**('21년 81만 4,618건 대비 1.5%↓)이었고, 미국·중국·호주 등 **166개 국가**에서 **2,330개 품목, 1,950만톤**('21년 1,894만톤 대비 3.0%↑), **389억 5,500만 달러**('21년 325억 7,800만 달러 대비 19.6%↑) 상당의 식품이 수입됐습니다.

○ 품목군별 수입 비중(중량 기준)은 **농·임산물**(46.1%, 899만 3,029톤), **가공식품**(33.3%, 649만 4,542톤), **축산물**(9.5%, 185만 124톤), **수산물**(6.2%, 121만 7,969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2.4%, 47만 4,660톤), **식품첨가물**(2.3%, 44만 3,392톤), **건강기능식품**(0.1%, 2만 7,045톤) 순입니다.

[2022년 품목별 수입실적(중량)]



[5년간 품목별 수입실적(중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총 수입 품목 중 상위 10개 품목(중량 기준)은 **밀,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옥수수, 대두, 돼지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 현미, 명태(냉동), 바나나, 과·채가공품, 김치** 순으로, 제조업체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상위 4개 품목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참조).

* 원당 · 원유 · 조주정 · 천일염 등 정제, 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수입 국가는 총 166개국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33.8%**를 차지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작년 수입신고 된 총 80만 2,201건 전체에 대해 정밀·현장·서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27건의 부적합(0.18%)이 발생**해 **부적합률이 전년(0.1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품목군별** 수입 관련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 1, 2 참조).

❶ **[농·임·축·수산물]** 수입 품목군 중 가장 큰 비율(중량 기준, 61.8%) 차지, 밀(농산물), 돼지고기(축산물), 명태(수산물)가 수입량 1위 품목

❷ **[건강기능식품]** 전년 대비 20.0% 증가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 복합영양소 제품과 자일리톨 등 개별인정형 원료의 수입량 증가

❸ **[가공식품]**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1.1%), 식품원료와 과·채가공품 강세 지속, 김치는 증가세(8.4%)로 전환, 맥주 수입량 지속 감소(11.1%)

❹ **[기구·용기·포장]** 전년 대비 4.2% 증가,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제 수입량 지속 증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❶ 농·축수산물 : 수입 품목군 중 가장 큰 비율(중량 기준, 61.8%) 차지, 밀(농산물), 돼지고기(축산물), 명태(수산물)가 수입량 상위 품목 >

○ **농·임산물**은 매년 전체 식품 수입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전체 수입량의 46.1%**('22년 899만 3,029톤)**를 차지**했습니다.

- 농·임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밀, 옥수수, 대두, 현미, 바나나 순이며 이 중 **밀, 옥수수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2.4%, 6.1% 증가**했습니다.

- 밀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밀가루로 제분되어 면류, 빵류, 과자류 제조 등에 사용되고, 옥수수는 전분, 당류 등으로 제조되는 대표적인 식품원료입니다.

농·임산물 상위 5개 품목 [전년 대비 증감률]	
• 밀(씨앗) : ('21) 261만 5,283톤 → ('22) 267만 8,274톤 **[2.4%↑]**	(1위)**호주**(47.0%)
• 옥수수(씨앗) : ('21) 227만 2,299톤 → ('22) 241만 1,089톤 **[6.1%↑]**	(1위)**우크라이나**(35.3%)
• 대두(씨앗,건조) : ('21) 130만 3,556톤 → ('22) 129만 7,767톤 **[0.4%↓]**	(1위)**미국**(48.9%)
• 현미(씨앗) : ('21) 43만 6,099톤 → ('22) 33만 7,855톤 **[22.5%↓]**	(1위)**중국**(45.1%)
• 바나나(열매,신선) : ('21) 35만 871톤 → ('22) 32만 1,989톤 **[8.2%↓]**	(1위)**필리핀**(72.9%)

○ **축산물**은 작년에 **185만 124톤** 수입되어 전체 품목군 중 **9.5%**를 차지했으며, 전년('21년 161만 5,180톤) 대비 **14.5% 증가**해 최근 5년 평균 증가율(2.6%)보다 **약 5배 이상(11.9%p)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컸습니다.

- 축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이며, 특히 **돼지고기 수입량**이 **25.9%, 닭고기 수입량은 54.0%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이는 작년 6월, 7월에 각각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됐고,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법」 제7조에 따라 물가나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특정 물품(중량)에 대하여 일정 기간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2020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된 독일산 돼지고기('20년까지 돼지고기 수입량 2위)를 다른 유럽국의 돼지고기로 대체해 수입

축산물 상위 5개 품목 [전년 대비 증감률]	
• 돼지고기 : ('21) 47만 1,936톤 → ('22) 59만 3,993톤 **[25.9%↑]**	(1위)**스페인**(27.0%)
• 소고기 : ('21) 52만 785톤 → ('22) 53만 2,868톤 **[2.3%↑]**	(1위)**미국**(52.1%)
• 닭고기 : ('21) 12만 7,236톤 → ('22) 19만 5,896톤 **[54.0%↑]**	(1위)**브라질**(89.5%)
• 자연치즈 : ('21) 13만 5,901톤 → ('22) 15만 559톤 **[10.8%↑]**	(1위)**미국**(43.6%)
• 혼합분유 : ('21) 6만 1,296톤 → ('22) 6만 2,185톤 **[1.5%↑]**	(1위)**네덜란드**(79.6%)

○ **수산물**은 작년에 121만 7,969톤이 수입되어 품목군 중 6.2%를 차지했으며, 수입량이 전년('21년 113만 1,321톤)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2.2%) 보다 약 3배 이상(5.5%p) 증가**했습니다.

- 수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명태(냉동), 고등어(냉동), 오징어(냉동), 청어(냉동), 주꾸미(냉동) 순으로, 이 중 **명태(냉동), 청어(냉동)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28.2%, 71.9% 증가**했습니다.

○ **명태(냉동)**는 전년 대비('21년 26만 2,189톤) 28.3% 증가한 33만 6,287톤이 수입되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신고*된 **러시아산 명태**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수출 등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도 수입신고 대상

○ **청어(냉동)** 역시 해외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신고된 **러시아산 청어**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산물 상위 5개 품목 [전년 대비 증감률]	
• 명태(냉동) : ('21) 26만 2,189톤 → ('22) 33만 6,287톤 **[28.3%↑]**	(1위)**러시아**(98.4%)
• 고등어(냉동) : ('21) 5만 5,224톤 → ('22) 5만 3,039톤 **[4.0%↓]**	(1위)**노르웨이**(88.9%)
• 오징어(냉동) : ('21) 3만 5,668톤 → ('22) 3만 4,789톤 **[2.5%↓)]**	(1위)**중국**(59.9%)
• 청어(냉동) : ('21) 1만 7,300톤 → ('22) 2만 9,735톤 **[71.9%↑]**	(1위)**러시아**(98.1%)
• 주꾸미(냉동) : ('21) 2만 9,065톤 → ('22) 2만 8,225톤 **[3.0%↓]**	(1위)**베트남**(7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❷ 건강기능식품 :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 복합영양소 제품과 자일리톨 등 개별인정형 원료의 수입량 증가 >

○ 건강기능식품은 작년에 2만 7,045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전년**('21년 2만 2,536톤) **대비 20.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량**이 **18.9%**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웰빙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증가 추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시형 제품*** 중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 보충을 위한 **복합영양소 제품**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51.6%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단일 기능성 제품보다 간편한 복합 영양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영양성분(비타민, 무기질) 및 기능성 원료(인삼, 홍삼 등) 등 96종

- 단일 기능성 제품으로는 혈중 중성지질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PA·DHA 함유 유지 제품**의 수입량이 **13.9%로 증가**한 반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24.3% 감소**했는데, 이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개별인정원료***의 수입량은 전년('21년 1,916톤) 대비 **64.2% 상승**한 **3,147톤**이 수입됐으며, 특히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일리톨**의 수입량('22년 1,789톤)이 **전년**('21년 669톤) **대비 크게 증가**(167.5%)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된 원료가 아닌 개별적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22.12.31. 기준 297종 인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해당 **원료의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20.12.29 시행) :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별인정형 자일리톨의 경우 기존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만 사용됐으나,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로 일반식품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

건강기능식품 상위 5개 품목 [전년 대비 증감률]	
• 복합영양소제품 : ('21) 5,514톤 → ('22) 8,361톤 **[51.6%]** • 개별인정원료 : ('21) 1,916톤 → ('22) 3,147톤 **[64.2%↑]** • 영양소, 기능성복합제품 : ('21) 2,890톤 → ('22) 2,904톤 **[0.5%↑]** • EPA 및 DHA 함유 유지 : ('21) 2,502톤 → ('22) 2,851톤 **[13.9%↑]** • 프락토올리고당 : ('21) 2,020톤 → ('22) 1,529톤 **[24.3%↓]**	(1위)**독일**(59.2%) (1위)**핀란드**(56.8%) (1위)**미국**(60.8%) (1위)**노르웨이**(18.9%) (1위)**중국**(59.2%)

〈 ❸ 가공식품 :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 식품원료와 과채가공품 강세 지속, 김치는 증가세로 전환, 맥주 수입량 지속 감소 〉

○ 작년 **가공식품 수입량**은 **649만 4,542톤**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1.2%)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공식품 **수입량 상위 품목**은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과·채가공품*, 김치, 정제소금, 맥주 순으로, 특히 2020년부터 감소세였던 **김치의 수입량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맥주의 경우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과·채가공품 : 토마토·파인애플 가공품(퓨레, 농축액, 페이스트, 섭취편의제품 등/약 25.2%)과 원료로 사용되는 오렌지·포도농축액의 수입비중이 높은 편임(약 8.4%)

** 김치 수입량 :('19년) 30만 6,619톤 → ('20년) 28만 1,021톤 → ('21년) 24만 3,124톤 → ('22년) 26만 3,498톤

- **김치**의 수입량('22년 26만 3,498톤)은 전년 대비('21년 24만 3,124톤) **8.4%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외식업이 다시 살아나고** 국내 물가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한편 **맥주의** 수입량은 총 **23만 1,148톤**으로 전년('21년 26만 102톤) 대비 **11.1%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확대**와 **과실주(와인 등), 위스키** 등 맥주 외 **주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 국내 수제맥주 시장 규모 : ('19년) 800억원(전년대비 26.4% 증가) → ('20년) 1,180억원(전년대비 47.5% 증가) (출처 : 한국소비자원)

** 과실주·위스키 수입량 : ('19년) 7만 228톤 → ('20년) 8만 3,822톤 → ('21년) 12만 2,646톤 → ('22년) 11만 3,742톤

가공식품 상위 5개 품목 [전년 대비 증감률]

• 정제·가공용 원료 : ('21) 275만 3,165톤 → ('22) 265만 7,159톤 **[3.5%↓]**	(1위)**호주**(38.4%)
• 과·채가공품 : ('21) 29만 706톤 → ('22) 30만 5,101톤 **[5.0%↑]**	(1위)**중국**(30.3%)
• 김치 : ('21) 24만 3,124톤 → ('22) 26만 3,498톤 **[8.4%↑]**	(1위)**중국**(100%)
• 정제소금 : ('21) 24만 2,589톤 → ('22) 23만 2,195톤 **[4.3%↓]**	(1위)**중국**(99.6%)
• 맥주 : ('21) 26만 102톤 → ('22) 23만 1,148톤 **[11.1%↓]**	(1위)**중국**(20.1%)

〈 ❹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전년대비 4.2% 증가, 합성수지제 수입 지속 증가 〉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수입량은 **47만 4,660톤**으로 전년('21년 45만 5,705톤) 대비 **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 증가율(5.7%)보다 약 **1.5%p 낮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 수입신고 된 품목 중 **음식용 포장·용기**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제**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포장·배달 음식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배달 음식 소비규모: ('20년) 17조 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 → ('21년) 25조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 (출처 : 통계청)

기구·용기·포장 상위 5개 품목 [전년 대비 증감률]

• 폴리에틸렌 : ('21) 127,799톤 → ('22) 133,748톤 **[4.6%↑]**	• (1위)**미국**(44.6%)
• 폴리프로필렌 : ('21) 62,693톤 → ('22) 96,167톤 **[53.4%↑]**	• (1위)**중국**(77.3%)
• 금속제 : ('21) 64,757톤 → ('22) 60,227톤 **[7.0%↓]**	• (1위)**중국**(84.4%)
• 도자기제 : ('21) 32,218톤 → ('22) 31,622톤 **[1.9%↓]**	• (1위)**중국**(74.4%)
• 불소수지 : ('21) 38,049톤 → ('22) 30,249톤 **[20.5%↓]**	• (1위)**중국**(8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우리나라에 수입식품 등을 **수출하는 국가**는 **166개국**으로, **미국·중국**에서 **수입된 식품 등**이 각각 **342만 6,671톤**과 **317만 1,318톤**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된 식품 등 수입량 합계**가 **전체 수입량의 33.8%**를 차지했습니다(붙임 2 참조).

○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밀,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 3품목(202만 2,587톤)**이 **5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 원료, 소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 돼지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도 많은 양(9.6%)이 수입됐습니다. (붙임 3 참조).

○ **중국**의 경우 **김치**(26만 3,495톤), **정제소금**(23만 1,369톤), **절임식품**(15만 1,610톤) 등 가공식품이 **중국 전체 수입량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됐으며, 그 외 **냉동 고추**와 **현미**의 수입량 또한 **11.2%**로 높았습니다.

○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국가는 **호주, 브라질, 태국 순**으로 호주에서는 **밀**(125만 8,667톤), **정제가공용 식품원료**(101만 9,340톤) 등이, **브라질**에서는 **대두**(53만 7,682톤), **옥수수**(38만 4,650톤), **닭고기**(냉동, 다리)(16만 7,775톤) 등이, **태국**에서는 **정제가공용 식품원료**(47만 7,992톤), **설탕**(9만 6,303톤) 등이 많이 수입됐습니다.

□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등 수입식품 등에 대한 **통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 작년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는 **1,427건(0.18%)**으로 **전년**('21년)**의 부적합률(0.17%),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적합률(0.1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에 따른 부적합 건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최근 5년간 부적합 현황 >

연도	건수	비율(%)*	중량(톤)	비율(%)*	금액(천달러)	비율(%)*
2022년	1,427	0.18	46,399	0.23	39,459	0.10
2021년	1,414	0.17	48,319	0.26	28,378	0.09
2020년	1,083	0.14	20,617	0.11	19,556	0.07
2019년	1,295	0.18	4,730	0.03	17,134	0.06
2018년	1,478	0.20	34,615	0.19	26,458	0.10

* 전체 수입(건수, 중량, 금액) 대비 비율

- 다만, 농산물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부적합 건수('22년 317건)가 전년('21년 112건)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농산물의 PLS* 적용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물질은 0.01 mg/kg이하로 일괄 관리

○ **부적합이 발생했던 주요 품목**은 수입신고 된 총 2,330개 품목 중 **300개 품목**으로, 상위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기구 또는 용기·포장), 과·채가공품,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 등입니다.

○ **부적합 상위 5개국**(건수 기준)은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이었으며, **부적합 사유**는 **▲개별기준·규격 위반**(458건, 32.1%)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317건, 22.2%) **▲미생물기준 위반**(214건, 15.0%)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1건, 14.1%) **▲이물 기준 위반**(92건, 6.4%)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붙임 4 참조).

□ 식약처는 향후 정부 최초로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신고 서류를 심사**하는 디지털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 심사24(SAFE-i24)**로 전환해 영업자의 비용과 시간은 대폭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식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통관단계에서 **주기적인 정밀검사,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국민 안심을 담보**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인공지능 분석(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고위험 품목 등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며, 2023년 9월 구축 예정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 >



*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E**valuation)하는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시스템으로, 최초수입 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1개 심사 항목 규칙기반 알고리즘으로 자동검토('22년 구축 완료 / '23년 시범운영)

* **처리기간** 평균 1일 → **5분** **물류비용** 연간 약 **60억원** 절감 **수입감시강화** 서류검토 최대 **30명** 증원 효과

※ (참고) 최종 확정된 2022년 수입식품 통계를 담은 수입식품검사연보는 올해 하반기에 발간해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impfood.mfds.go.kr)에 공개될 예정으로, 해당 보도자료의 통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2년 품목별 수입신고 현황
2. 2022년 국가별 수입신고 현황(상위 20개국)
3. 2022년 미국, 중국 수입신고 현황
4. 2022년 부적합 상위 5개국 부적합 사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2022년 품목별 수입신고 현황

○ 품목별(중량기준, 상위20개) 수입신고 현황

순번	품목명	수입건수	중량(톤)	금액(천달러)
	전 체	**802,201**	**19,500,762**	**38,954,991**
	소 계	**117,540**	**12,926,182(66.3%)**	**12,481,048**
1	밀(씨앗)	943	2,678,274(13.7%)	1,082,993
2	정제,가공을거쳐야하는식품원료	2,250	2,657,159(13.6%)	2,372,108
3	옥수수(씨앗)	757	2,411,089(12.4%)	940,245
4	대두(씨앗,건조)	1,059	1,297,767(6.7%)	948,381
5	돼지고기(냉동,정육(뼈없는것), 돼지고기정육/지육)	16,965	360,575(1.8%)	1,448,957
6	현미(씨앗)	58	337,855(1.7%)	305,292
7	명태(냉동)	1,019	336,287(1.7%)	358,723
8	바나나(열매,신선)	3,022	321,989(1.7%)	283,859
9	과.채가공품	17,795	305,101(1.6%)	642,416
10	김치	18,923	263,498(1.4%)	158,493
11	소고기(냉동,정육(뼈없는것), 소고기정육/지육)	14,394	237,797(1.2%)	1,726,900
12	정제소금	256	232,195(1.2%)	26,179
13	맥주	5,346	231,148(1.2%)	183,083
14	고추(열매,냉동)	2,397	213,727(1.1%)	143,917
15	커피원두(씨앗,건조)	6,851	182,401(0.9%)	906,034
16	절임식품	9,851	181,421(0.9%)	154,613
17	닭고기(냉동,다리,닭고기정육/지육)	8,024	179,762(0.9%)	450,019
18	서류가공품	6,678	177,839(0.9%)	258,216
19	천일염	239	164,138(0.8%)	13,677
20	보리(씨앗)	713	156,161(0.8%)	76,9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농·임산물 수입신고 현황

(단위: 톤, 천달러)

'22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21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1	밀(씨앗)	2,678,274	1,082,993	1	밀(씨앗)	2,615,283	654,677
2	옥수수(씨앗)	2,411,089	940,245	2	옥수수(씨앗)	2,272,299	696,641
3	대두(씨앗,건조)	1,297,767	948,381	3	대두(씨앗, 건조)	1,303,556	770,693
4	현미(씨앗)	337,855	305,292	4	현미(씨앗)	436,099	360,361
5	바나나(열매,신선)	321,989	283,859	5	바나나(열매, 신선)	350,871	288,623
6	고추(열매,냉동)	213,727	143,917	6	고추(열매, 냉동)	238,636	149,452
7	커피원두(씨앗,건조)	182,401	906,034	7	커피원두(씨앗, 건조)	164,700	556,736
8	보리(씨앗)	156,161	76,943	8	보리(씨앗)	145,538	60,367
9	카사바(덩이뿌리,건조)	140,451	57,128	9	오렌지(열매, 신선)	109,506	199,856
10	당근(뿌리,신선)	94,951	41,227	10	카사바(덩이뿌리, 건조)	95,461	35,326

○ 축산물 수입신고 현황

(단위: 톤, 천달러)

'22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21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1	돼지고기	593,993	2,166,308	1	소고기	520,785	4,015,179
2	소고기	532,868	4,715,830	2	돼지고기	471,936	1,806,530
3	닭고기	195,896	484,936	3	자연치즈	135,901	560,883
4	자연치즈	150,559	760,684	4	닭고기	127,236	235,386
5	혼합분유	62,185	257,402	5	혼합분유	61,296	206,293
6	양념육	40,628	191,404	6	양념육	29,721	134,651
7	우유	31,372	22,783	7	우유	23,000	15,300
8	양고기	26,351	272,613	8	가공유크림	21,219	67,117
9	가공유크림	24,239	79,547	9	가공버터	19,888	88,601
10	유크림	23,619	92,992	10	버터	17,744	110,59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수산물 수입신고 현황

(단위: 톤, 천달러)

'22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21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1	명태(냉동)	336,287	358,723	1	명태(냉동)	262,189	270,336
2	고등어(냉동)	53,039	123,800	2	고등어(냉동)	55,224	109,339
3	오징어(냉동)	34,789	100,690	3	오징어(냉동)	35,668	99,056
4	청어(냉동)	29,735	27,408	4	아귀(냉동)	30,498	44,729
5	주꾸미(냉동)	28,225	195,640	5	연어(냉장)	29,672	298,132
6	곱사연어(냉동)	27,882	48,628	6	주꾸미(냉동)	29,065	197,682
7	대구(냉동)	26,136	109,466	7	곱사연어(냉동)	29,063	59,515
8	낙지(냉동)	25,588	174,301	8	대구(냉동)	29,003	86,987
9	아귀(냉동)	24,849	41,422	9	꽁치(냉동)	26,137	76,102
10	오징어(냉동,지느러미)	24,340	37,231	10	낙지(냉동)	24,796	159,761

○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현황

(단위: 톤, 천달러)

'22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21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1	복합영양소제품	8,361	337,162	1	복합영양소제품	5,514	269,801
2	개별인정원료*	3,147	166,671	2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	2,890	205,007
3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	2,904	202,577	3	EPA 및 DHA 함유 유지	2,502	83,898
4	EPA 및 DHA 함유 유지	2,851	95,457	4	프락토올리고당	2,020	8,037
5	프락토올리고당	1,529	5,860	5	개별인정원료	1,916	138,541
6	단백질	1,150	26,714	6	단백질	1,366	32,547
7	차전자피식이섬유	1,000	9,804	7	차전자피식이섬유	759	8,128
8	엠에스엠(MSM, 디메틸설폰)	658	7,342	8	비타민 C	517	27,350
9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510	8,026	9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493	8,723
10	이눌린/치커리 추출물	491	1,443	10	엠에스엠(MSM, 디메틸설폰)	448	5,3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개별인정원료 수입신고 현황

(단위: 톤)

'22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21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1	자일리톨	1,789	1	자일리톨	669
2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209	2	피쉬콜라겐펩타이드	208
3	피쉬콜라겐펩타이드	180	3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186
4	보스웰리아추출물	132	4	보스웰리아추출물	142
5	콘드로이친	76	5	석류농축액	110
6	자일로올리고당	59	6	자일로올리고당	56
7	락추로스파우더	53	7	콘드로이친	36
8	프로바이오틱스(드시모네)	48	8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	35
9	돌외잎주정추출분말	45	9	매스틱검	32
10	석류농축액	44	10	시서스추출물	31

○ 가공식품 수입신고 현황

(단위: 톤, 천달러)

'22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21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1	정제,가공을거쳐야 하는식품원료	2,657,159	2,372,108	1	정제·가공을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2,753,165	1,966,496
2	과.채가공품	305,101	642,416	2	과·채가공품	290,706	532,460
3	김치	263,498	158,493	3	맥주	260,102	204,827
4	정제소금	232,195	26,179	4	김치	243,124	137,437
5	맥주	231,148	183,083	5	정제소금	242,589	20,175
6	절임식품	181,421	154,613	6	절임식품	176,297	134,789
7	서류가공품	177,839	258,216	7	천일염	154,980	13,634
8	천일염	164,138	13,677	8	곡류가공품	152,210	174,502
9	곡류가공품	150,342	190,839	9	서류가공품	150,652	201,386
10	전분	150,281	124,966	10	전분	145,255	109,4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주요 수입신고 현황

(단위: 톤, 천달러)

'22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21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1	폴리에틸렌	133,748	444,506	1	폴리에틸렌	127,799	392,799
2	폴리프로필렌	96,167	817,825	2	금속제	64,757	466,664
3	금속제	60,227	488,341	3	폴리프로필렌	62,693	605,619
4	도자기제	31,622	198,566	4	불소수지	38,049	280,483
5	불소수지	30,249	250,686	5	도자기제	32,218	182,035
6	고무제	27,442	183,824	6	고무제	28,621	217,908
7	무착색유리제	23,054	59,075	7	무착색유리제	25,173	53,616
8	종이제	14,399	42,338	8	종이제	13,744	39,029
9	나무제	13,285	54,548	9	나무제	13,365	55,506
1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695	44,426	1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7,039	45,590

○ 식품첨가물 주요 수입신고 현황

(단위: 톤, 천달러)

'22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21년 수입신고 현황		중 량	금 액
1	초산전분	96,573	73,927	1	초산전분	79,038	57,551
2	L-글루탐산나트륨	53,898	93,088	2	L-글루탐산나트륨	49,030	67,360
3	혼합제제	27,550	229,017	3	혼합제제	29,217	236,900
4	구연산결정	15,185	23,938	4	인산	16,673	20,507
5	인산	14,936	25,820	5	구연산결정	15,808	15,681
6	탄산수소나트륨	12,877	6,667	6	D-소비톨	14,915	17,158
7	규조토융제소성	12,036	6,752	7	탄산수소나트륨	14,649	6,163
8	산성백토	11,532	5,326	8	규조토융제소성	13,597	7,102
9	구연산무수	10,336	21,054	9	탄산나트륨무수	12,797	3,529
10	D-소비톨	9,928	11,830	10	산성백토	11,514	4,59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수입량 상위 5개 품목별 수입 상위 국가

품목군	수입량 상위 5개 품목 - 수입상위 3개 국가
농임산물	• 밀(씨앗) : (1위)호주(47.0%), (2위)미국(43.3%), (3위)캐나다(9.3%) • 옥수수(씨앗) : (1위)우크라이나(35.3%), (2위)브라질(16.0%), (3위)루마니아(11.9%) • 대두(씨앗,건조) : (1위)미국(48.9%), (2위)브라질(41.4%), (3위)중국(6.1%) • 현미(씨앗) : (1위)중국(45.1%), (2위)미국(16.7%), (3위)베트남(15.1%) • 바나나(열매,신선) : (1위)필리핀(72.9%), (2위)베트남(6.8%), (3위)콜롬비아(5.2%)
축산물	• 돼지고기 : (1위)스페인(27.0%), (2위)미국(26.5%), (3위)캐나다(10.8%) • 소고기 : (1위)미국(52.1%), (2위)호주(36.4%), (3위)뉴질랜드(5.5%) • 닭고기 : (1위)브라질(89.5%), (2위)태국(5.3%), (3위)미국(3.0%) • 자연치즈 : (1위)미국(43.6%), (2위)뉴질랜드(15.2%), (3위)독일(11.1%) • 혼합분유 : (1위)네덜란드(79.6%), (2위)독일(5.7), (3위)중국(5.5%)
수산물	• 명태(냉동) : (1위)러시아(98.4%), (2위)미국(1.6%), (3위)캐나다(0.03%) • 고등어(냉동) : (1위)노르웨이(88.9%), (2위)중국(4.8%), (3위)영국(2.4%) • 오징어(냉동) : (1위)중국(59.9%), (2위)아르헨티나(14.2%), (3위)스페인(11.5%) • 청어(냉동) : (1위)러시아(98.1%), (2위)미국(1.8%), (3위)미얀마(0.1%) • 주꾸미(냉동) : (1위)베트남(76.2%), (2위)태국(17.6%), (3위)인도네시아(4.4%)
건강기능식품	• 복합영양소제품 : (1위)독일(59.2%), (2위)미국(23.8%), (3위)캐나다(6.1%) • 개별인정원료 : (1위)핀란드(56.8%), (2위)인도(15.5%), (3위)대만(6.6%) • 영양소, 기능성복합제품 : (1위)미국(60.8%), (2위)캐나다(23.5%), (3위)독일(7.0%) • EPA·DHA 함유유지 : (1위)노르웨이(18.9%), (2위)캐나다(17.5%), (3위)미국(14.8%) • 프락토올리고당 : (1위)중국(59.2%), (2위)인도(29.8%), (3위)이스라엘(10.6%)
가공식품	• 정제·가공용원료 : (1위)호주(38.4%), (2위)태국(18.0%), (3위)말레이시아(8.5%) • 과·채가공품 : (1위)중국(30.3%), (2위)미국(10.9%), (3위)필리핀(9.3%) • 김치 : (1위)중국(100%) • 정제소금 : (1위)중국(99.6%), (2위)일본(0.2%), (3위)파키스탄(0.1%) • 맥주 : (1위)중국(20.1%), (2위)네덜란드(19.2%), (3위)일본(8.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 2022년 국가별 수입신고 현황(상위 20개국)

순위	국가	건수	순위	국가	중량(톤)	순위	국가	금액(천달러)
총계(166개국)		802,201	총계(166개국)		19,500,762	총계(166개국)		38,954,991
소계 20개국		700,773	소계 20개국		17,289,705	소계 20개국		32,685,417
소계(%)		(87.4%)	소계(%)		(88.7%)	소계(%)		(83.9%)
1	중국	228,648 (28.5%)	1	**미국**	3,426,671 (17.6%)	1	미국	7,929,689 (20.4%)
2	미국	94,972 (11.8%)	2	**중국**	3,171,318 (16.3%)	2	중국	6,056,492 (15.5%)
3	프랑스	46,320 (5.8%)	3	**호주**	2,960,729 (15.2%)	3	호주	3,322,684 (8.5%)
4	일본	45,335 (5.7%)	4	**브라질**	1,328,129 (6.8%)	4	베트남	1,682,981 (4.3%)
5	이탈리아	41,084 (5.1%)	5	**태국**	965,013 (4.9%)	5	러시아	1,431,872 (3.7%)
6	베트남	33,204 (4.1%)	6	우크라이나	871,571 (4.5%)	6	브라질	1,430,236 (3.7%)
7	태국	32,990 (4.1%)	7	러시아	689,875 (3.5%)	7	태국	1,132,203 (2.9%)
8	호주	31,071 (3.9%)	8	베트남	676,320 (3.5%)	8	스페인	1,061,359 (2.7%)
9	스페인	23,060 (2.9%)	9	캐나다	535,753 (2.7%)	9	캐나다	1,050,812 (2.7%)
10	독일	17,773 (2.2%)	10	필리핀	364,169 (1.9%)	10	프랑스	940,940 (2.4%)
11	노르웨이	15,774 (2.0%)	11	말레이시아	330,196 (1.7%)	11	뉴질랜드	902,209 (2.3%)
12	영국	14,934 (1.9%)	12	스페인	296,158 (1.5%)	12	독일	770,186 (2.0%)
13	브라질	11,565 (1.4%)	13	루마니아	286,931 (1.5%)	13	말레이시아	727,723 (1.9%)
14	캐나다	11,050 (1.4%)	14	세르비아	245,733 (1.3%)	14	이탈리아	721,978 (1.9%)
15	칠레	10,034 (1.3%)	15	네덜란드	232,277 (1.2%)	15	네덜란드	702,546 (1.8%)
16	러시아	9,106 (1.1%)	16	인도네시아	198,801 (1.0%)	16	노르웨이	633,594 (1.6%)
17	뉴질랜드	8,659 (1.1%)	17	독일	187,108 (1.0%)	17	칠레	618,622 (1.6%)
18	네덜란드	8,610 (1.1%)	18	아르헨티나	180,522 (0.9%)	18	일본	592,851 (1.5%)
19	인도네시아	8,503 (1.1%)	19	뉴질랜드	175,911 (0.9%)	19	영국	502,895 (1.3%)
20	말레이시아	8,081 (1.0%)	20	인도	166,520 (0.9%)	20	인도네시아	473,545 (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3 2022년 미국, 중국 수입신고 현황

<미국 품목군별 주요 품목 수입신고 현황>

구분	건수기준	중량 기준	금액기준
농·임산물	체리(열매,신선)(1,638건)	밀(씨앗)(1,160,427톤)	밀(씨앗)(487,962천달러)
	오렌지(열매,신선)(1,305건)	대두(씨앗,건조)(634,868톤)	대두(씨앗,건조)(443,104천달러)
	아몬드(견과,건조)(933건)	옥수수(씨앗)(227,292톤)	오렌지(열매,신선)(148,985천달러)
가공식품	과실주(4,438건)	정제,가공을거쳐야하는식품원료(112,237톤)	정제,가공을거쳐야하는식품원료(183,135천달러)
	볶은커피(2,608건)	서류가공품(85,799톤)	볶은커피(131,541천달러)
	서류가공품(2,564건)	과.채가공품(33,180톤)	서류가공품(130,729천달러)
건강 기능 식품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2,238건)	복합영양소제품(1,990톤)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139,688천달러)
	복합영양소제품(1,236건)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1,766톤)	복합영양소제품(122,867천달러)
	프로바이오틱스(527건)	단백질(934톤)	프로바이오틱스(54,350천달러)
식품 첨가물	혼합제제(1,238건)	탄산수소나트륨(4,987톤)	혼합제제(50,126천달러)
	향료(837건)	혼합제제(3,113톤)	향료(8,569천달러)
	천연향료(509건)	규조토융제소성(1,954톤)	천연향료(7,106천달러)
기구 또는 용기·포장	폴리에틸렌(933건)	폴리에틸렌(59,712톤)	폴리에틸렌(140,053천달러)
	금속제(559건)	종이제(1,452톤)	금속제(54,150천달러)
	착색유리제(가열조리용)(515건)	착색유리제(가열조리용)(1,176톤)	착색유리제(가열조리용)(12,119천달러)
축산물	소고기(냉장,정육(뼈없는것),소고기정육/지육)(7,886건)	소고기(냉동,정육(뼈없는것),소고기정육/지육)(110,778톤)	소고기(냉동,정육(뼈있는것),소고기정육/지육)(868,876천달러)
	소고기(냉동,정육(뼈없는것),소고기정육/지육)(5,482건)	돼지고기(냉동,정육(뼈없는것),돼지고기정육/지육)(105,362톤)	소고기(냉장,정육(뼈없는것),소고기정육/지육)(835,825천달러)
	돼지고기(냉동,정육(뼈없는것),돼지고기정육/지육)(5,061건)	소고기(냉동,정육(뼈있는것),소고기정육/지육)(85,612톤)	소고기(냉동,정육(뼈없는것),소고기정육/지육)(833,682천달러)
수산물	가오리(냉동)(288건)	가오리(냉동)(11,346톤)	각시가자미(냉동)(8,967천달러)
	먹장어(활)(244건)	명태(냉동)(5,233톤)	명태(냉동)(8,705천달러)
	바닷가재(활)(220건)	각시가자미(냉동)(4,473톤)	먹장어(활)(7,393천달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중국 품목군별 주요 품목 수입신고 현황>

구분	건수기준	중량 기준	금액기준
농·임산물	고추(열매,냉동)(2,138건)	고추(열매,냉동)(202,735톤)	현미(씨앗)(156,979천달러)
	도라지/길경(뿌리,신선)(1,965건)	현미(씨앗)(152,449톤)	고추(열매,냉동)(134,913천달러)
	당근(뿌리,신선)(1,868건)	당근(뿌리,신선)(87,300톤)	대두(씨앗,건조)(97,016천달러)
가공식품	김치(18,917건)	김치(263,495톤)	과.채가공품(183,013천달러)
	절임식품(6,754건)	정제소금(231,369톤)	김치(158,447천달러)
	과.채가공품(6,159건)	절임식품(151,610톤)	기타 수산물가공품(152,641천달러)
건강 기능 식품	개별인정원료(64건)	프락토올리고당(905톤)	개별인정원료(10,914천달러)
	히알루론산(53건)	폴리덱스트로스(429톤)	프락토올리고당(3,225천달러)
	프락토올리고당(39건)	개별인정원료(207톤)	코엔자임Q10(2,586천달러)
식품첨가물	혼합제제(1,165건)	L-글루탐산나트륨(16,508톤)	인산(24,110천달러)
	향료(1,010건)	구연산결정(14,861톤)	혼합제제(23,393천달러)
	합성향료(548건)	인산(14,221톤)	L-글루탐산나트륨(23,288천달러)
기구 또는 용기·포장	폴리프로필렌(22,337건)	폴리프로필렌(74,373톤)	폴리프로필렌(562,429천달러)
	금속제(21,752건)	금속제(50,840톤)	금속제(303,756천달러)
	도자기제(8,678건)	폴리에틸렌(28,890톤)	불소수지(168,982천달러)
축산물	햄(718건)	햄(7,129톤)	햄(26,073천달러)
	양념육(407건)	양념육(5,274톤)	혼합분유(24,794천달러)
	혼합분유(114건)	혼합분유(3,428톤)	양념육(20,697천달러)
수산물	낙지(활)(2,982건)	아귀(냉동)(24,084톤)	낙지(냉동)(110,364천달러)
	바지락(활)(2,805건)	오징어(냉동)(20,852톤)	낙지(활)(95,083천달러)
	낙지(냉장)(2,282건)	낙지(냉동)(17,301톤)	부세(냉동)(71,815천달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4 2022년 부적합 상위 5개국 부적합 사유

국가	순위	부적합사유	건수	국가	순위	부적합사유	건수
전체	**총 계**		**1,427**	미국	**총 계**		**109**
	소 계		**1,282**		**소 계**		**99**
	1	개별 기준규격 위반	458		1	개별 기준규격 위반	57
	2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	317		2	이물	14
	3	미생물기준 위반	214		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11
	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201		4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9
	5	이물	92		5	미생물기준 위반	8
중국	**총 계**		**534**	태국	**총 계**		**64**
	소 계		**483**		**소 계**		**63**
	1	개별 기준규격 위반	242		1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27
	2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128		2	미생물기준 위반	17
	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53		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13
	4	미생물기준 위반	42		4	허용외 식품원료(첨가물)	4
	5	이물	18		5	개별 기준규격 위반	2
베트남	**총 계**		**131**	인도	**총 계**		**60**
	소 계		**118**		**소 계**		**54**
	1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47		1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16
	2	미생물기준 위반	34		2	이물	15
	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24		3	개별 기준규격 위반	14
	4	개별 기준규격 위반	7		4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5
	5	허용외 식품원료(첨가물)	6		5	곰팡이독소기준 위반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